

광주FC '기적의 전사들' 내년 봄 안방서 본다



승격 기념 홈경기 요청...광주시, 5월 한달 경기장 사용 허가

“선수들이 1부리그 승격이라는 기적을 일군만큼 이번엔 광주시민들이 구름관중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내년 전반기 홈구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광주FC가 다행히 4~5차대 안방에서 홈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29일 광주시와 광주 FC에 따르면 내년 3월7일 개막하는 프로축구 K 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뛰는 광주 FC가 4~5월 다섯차례정도 홈경기를 펼칠 전망이다. 광주시와 광주해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조직위원회가 광주월드컵경기장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는 내년 1월부터 7월 까지 U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할 월드컵경기장의 개 보수 공사를 이유로 K리그 경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 FC는 전반기 내내 타 지역을 떠돌며 고난의 원정경기를 치러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2부리그인 챌린지 4위에서 클래식 승격의

기적을 이룬 광주 FC가 광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면서 홈경기 개최 요구가 높아졌다. 광주 FC도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에 홈경기 개최를 위한 경기장 사용을 요청했다.

공사를 맡은 광주시는 축구팬들의 열망을 포용해 공사기간을 내년 3월말로 단축했다. 4~5월 광주 FC가 홈구장인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FC가 1부리그 승격의 기적을 이루면서 시민들의 홈경기 개최 요구가 높아졌다”며 “광주 FC를 이끄는 한 축인 광주시도 이를 포용해 공사기간을 당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3월말 마무리되면 4월 중순 또는 5월께 광주FC는 홈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FC 관계자는 “4~5월 홈구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축구연맹과 타 구단에 일정 조정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습도 실전처럼... 55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9일 호주 시드니 매쿼리대학교 스포츠필드에서 이를 때 현지 적응 훈련을 이어갔다. 선수들이 오후 훈련을 하며 미니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장 백배 '놀이면서 훈련'

축구대표팀, 포메이션 형성 게임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담금질에 들어간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하루 두 차례씩 본격 훈련에 들어갔다.

호주 시드니의 훈련장인 매쿼리 대학 스포츠 필드에 소집된 선수단 21명은 29일 오전 부상자가 전혀 없이 모두 계획된 훈련에 참여했다.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은 이날부터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체력을 끌어올리고 전술을 다듬는 훈련에 들어갔다.

태극전사들은 오전에 피로를 풀고 경기 감각을 끌어 올리는 놀이를 시작했다. 두 팀으로 나뉘어 중원에 마구 뒤섞여 공을 주고받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재빨리 정해진 포메이션을 형성하는 게임이었다.

왼쪽 풀백, 오른쪽 윙어 등 자신의 포지션에 관계없이 4-4-1, 3-3-3, 4-3-2, 4-5, 3-2-4 등 무작위로 주어지는 전열을 빨리 형성하는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두 편으로 나뉜 선수들은 정해진 구역 안에 주어진 포메이션을 짜고서 자기 편이 더 빨리 목표를 달성했다고 서로 우겼다.

그라운드는 맹벌레위 속에서도 즐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고 훈련은 점점 열기를 더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 때 어떤 상황이 불거지지 모른다”며 “자기 포메이션에 얽매지 않고 신속하게 빈 자리를 메우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전술 유연화다. 슈틸리케 감독은 최전방과 최후방의 간격만 압축적으로 유지되면 그 안의 전술 대형은 선수들의 재량이 맡긴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그는 데뷔전인 지난 10월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부터 유연한 전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당시 슈틸리케 호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으나 대형은 4-3-3, 4-2-4 등 자유자재로 바뀌어 상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연합뉴스

“올 최고 축구 경기는 AG 결승전”

축구협 설문 축구팬 54% 응답

축구 팬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축구 경기는 아시안게임 결승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축구협회가 4일부터 26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축구팬이 뽑은 2014 KFA(대한축구협회) 올해의 베스트’ 설문 결과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과의 결승전이 올해의 경기로 뽑혔다.

2606명의 팬이 참여한 조사에서 아시안게임 결승전은 1420표를 얻어 5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10월2일 벌어진 북한과의 결승에서 한국은 연장 후반에 터진 임창우(대전)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

리, 28년 만에 금메달을 땀다.

올해 최고의 선수는 소속팀 레버쿠젠과 대표팀을 가리지 않고 활약한 손흥민이 차지했다. 손흥민은 1319표를 받아 51%라는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가뭄이 올해의 선수 부문 1위에 올랐다.

최고의 골은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러시아전에서 터진 이근호(엘자이시)의 선제골로 선정됐다. 이근호의 골은 749표를 받아 전체 29%의 지지를 받았다.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터진 임창우의 골(535표·21%),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U-16) 챔피언십 8강 일본전에서 이승우가 터뜨린 추가 골(514표·20%)이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 /연합뉴스

K리그, 11구단 체제·팀당 40경기

2015 달라지는 것들...신인 완전자유선발제 적용·우선지명권 9월 행사

2015년 올미년 변화의 바람으로 K리그가 더 뜨거워진다.

치열했던 ‘겨울 잔치’ 끝에 광주가 승격 티켓을 따내면서 대전과 클래식 리그에서 다시 뛰게 됐다. 챌린지 리그는 서울 이랜드 FC의 참여로 11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내년 시즌 K리그의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

클래식 리그 최하위를 기록한 12위 상주와 승강플레이오프에서 광주에 패한 11위 경남이 내년 시즌 챌린지 리그에서 도전에 나선다. 챌린지리그는 신생팀 서울 이랜드 FC의 출발로 11구단으로 새 시즌을 맞는다. 정규라운드는 팀당 36경기에서 40경기로 늘어나게 되고 홈수입 체제가 되면서 매 라운드 1팀은 휴식을 취하게 된다.

신인선수 선발방식도 달라진다. 2006년 신인부터 적용됐던 드래프트제가 폐지되면서 2016년 신인선발부터 완전자유선발제가 적용된다. 또 미지명 유소년 선수의 진학 및 진로 모색 기회 보장을 위해 우선지명권 행

사 시점을 11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선수 로스터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 시즌까지 만 23세(챌린지 만 22세) 이하 두 명을 엔트리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2명 등록에 의무선발 1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선수 에이전트 제도가 국제축구연맹(FIFA) 총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고, 2015년 4월1일부터 선수 중개인 제도가 도입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각 리그별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은 4장에서 3.5장으로 줄어든다. 조별리그 직행 3팀과 플레이오프를 거친 1팀이 AFC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적용되며 클래식 우승팀 전북, FA컵을 차지한 성남, 클래식 2위 순위가 조별리그에 직행하고 클래식 3위팀인 서울은 플레이오프 1경기를 거쳐 조별리그에서 뛸 수 있다. /김여울기자 w00l@kwangju.co.kr